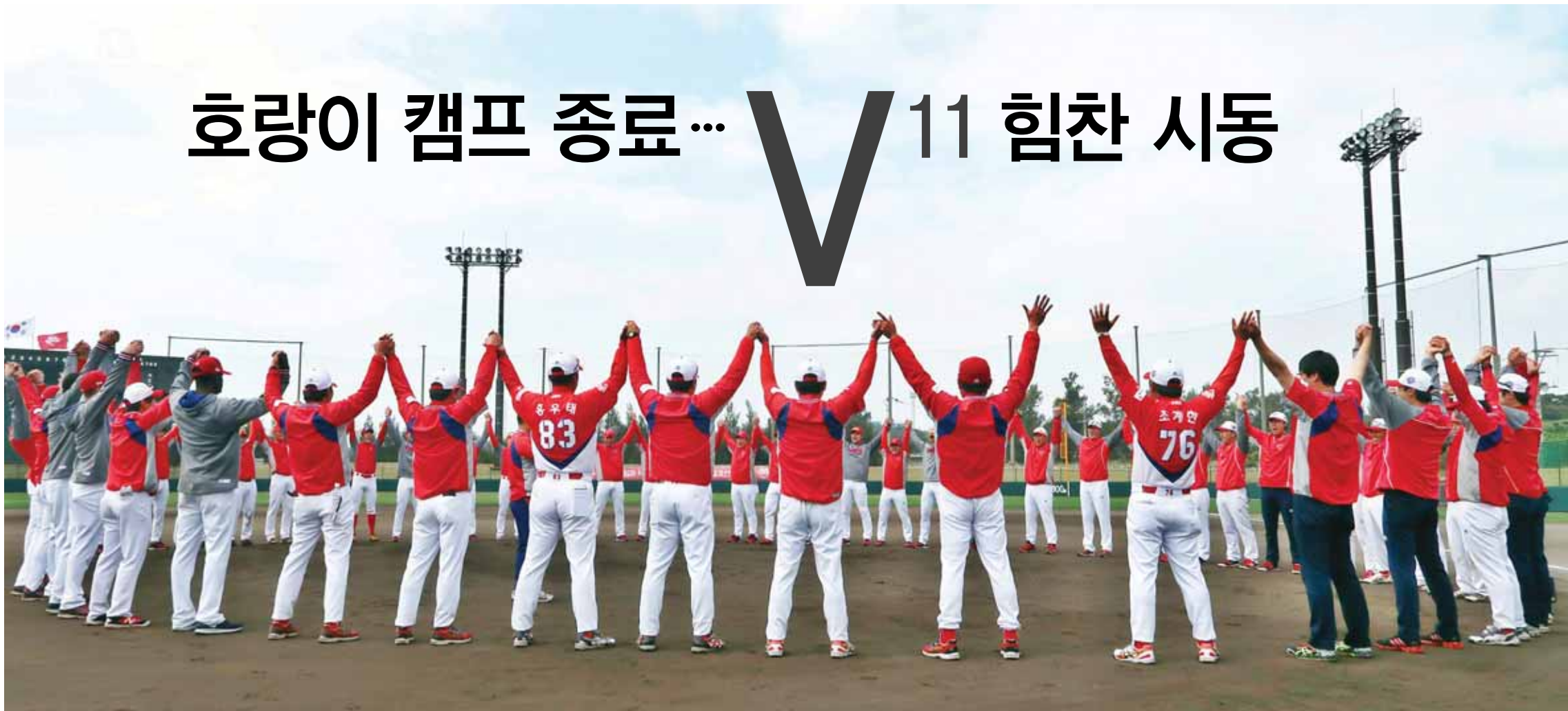


호랑이 캠프 종료... V11 힘찬 시동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선수단이 9일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마지막 훈련을 끝낸 뒤 동그랗게 서서 환호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헥터·양현종·팻 던 1~3선발 안정적...한승혁·심동섭·박지훈 업그레이드

‘모범생’ 버나디나 공·수·주 활약...10일 귀국 후 12일부터 시범경기 준비

KIA 타이거즈의 2017 스프링캠프가 10일 종료된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른 KIA 선수단이 10일 오후 인천 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지난달 1일 오키나와 킨구장에 캠프를 차린 선수단은 38일 동안 전지훈련을 소화했다. 캠프 초반 체력 및 기술 훈련을 소화한 선수단은 11일 흥배전을 시작으로 실전 준비에 나섰다. 14일 일본 야쿠르트와

의 연습경기를 필두로 일본·국내 팀과 10경기를 치른 KIA의 전적은 3승7패. 일본 팀과의 대결에서 6연패를 기록했지만 한화·롯데를 상대로 끝내기 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캠프에서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선보인 투수 한승혁이 ‘감독상’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한승혁은 연습경기 5경기에 나와 16타자를 상대해 1피안타만 허용했다. 사사구 없이 5개의 탈삼진을 뽑아냈고 직

구 최고 구속은 154km를 찍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3년 만에 스프링캠프에 참여한 ‘예비역’ 박지훈은 투수상 주인공이 됐다. 역시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외야수 이준호는 타자상을 받았다. 이외에 내야수 이인행이 수비상, 외야수 노수광은 운영팀장상, 내야수 김규성은 매니저상, 투수 김현준은 전력분석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프를 통해 KIA는 올 시즌의 큰

그림을 그렸다.

헥터 노에시·양현종에 이어 ‘신입 외국인 선수’ 팻 던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선발한 자리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김진우, 홍건희, 김윤동, 임기영 등이 선발 후보로 테스트를 받았다.

박지훈이 새로 가세한 볼펜에서는 ‘MVP’ 한승혁과 좌완 심동섭이 눈에 띄었다. ‘투수조 조정’ 심동섭은 6차례의 연습경기에서 7이닝을 소화하며 9피안타 2사사구 5탈삼진 2실점(1자책)을 기록했다. 피안타가 많이 기록됐지만, 구위가 살아나면서 지난해 부진 만회를 위한 발판을 놓았다.

브렛 필을 대신해 선택한 로저 버나디나

도 공·수·주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다. 홈런포 포함 13타수 6안타(0.462)를 때린 그는 가장 많은 3개의 도루도 기록했다.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한 송구 실력까지 선보인 버나디나는 자율훈련에도 참여하는 등 ‘모범선수’로 캠프를 치렀다.

김기태 감독은 “이번 캠프를 잘 소화해준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에게 고맙다. 40일에 가까운 긴 캠프였지만 모두 즐겁게 지냈고, 선수들의 체력과 기량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KIA 선수단은 11일 휴식을 취한 뒤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훈련하며 시범경기 개막을 준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WBC 돌풍’ 이스라엘

자국민도 무관심했던 ‘변방’...한국 등 꺾고 1R 통과

이제까지 이스라엘 야구는 베일에 싸인 신비한 존재였다.

2007년 리그가 출범했고, 6개 팀이 3개 구장에서만 경기하는 이스라엘 야구는 자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철저한 ‘세계 변방’이었다. 하지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서울라운드 돌풍으로 이스라엘에서 야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베냐민 네타냐후(68) 이스라엘 총리는 8일(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은 한국에서 열린 WBC에서 성공적으로 놀라운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스라엘은 이번 대회 1라운드 최고의 돌풍을 일으킨 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물간 선수와 마이네리جو 유대계 선수

를 끌어모아 겨우 팀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막상 투경을 열어보니 탄탄한 전력을 자랑했다.

이스라엘은 대회 공식 개막전인 6일 한국전에서 2-1로 승리했고, 7일에는 대만을 15-7로 대파하고 가장 먼저 2승을 따냈다. 8일 네덜란드가 대만을 꺾으면서, 이스라엘은 1라운드 통과를 확정하고 2라운드가 열리는 일본 도쿄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반면 한국 야구대표팀은 WBC 2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의 수모를 당했다.

지난 8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WBC 서울라운드 A조 경기에서 네덜란드가 대만을 6-5로 제압하면서 일찌감치 한국의 탈락이 확정됐다.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이 8일 1라운드 통과를 확정했고, 한국과 대만의 9일 경기는 3-4위 순위 결정전으로 치러졌다.

/연합뉴스



광주 FC의 송승민(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오는 12일 원정 경기에서 ‘포항 징크스’개기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4일 대구 FC와의 개막전 모습.

〈광주 FC 제공〉

광주 FC, 포항 징크스 깨고 연승 간다



역대 전적 5무6패...12일 원정경기

주장 송승민 “합류 늦은만큼 최선”

광주 FC의 새로운 ‘캡틴’ 송승민이 연승을 이끈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오는 12일 오후 3시 포항스틸야드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K리그 클래식 2017 2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지난 4일 대구 FC와의 시즌 개막전을 1-0, 기분 좋은 승리로 장식한 광주는 포항으로 건너가 연승을 노린다. 광주가 소원대로 연승을 달성하면 포항전 첫 승이라는 성과도 동시에 올리게 된다.

광주는 포항과의 역대전적에서 5무 6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개막전 아쉬운 무승부의 기억도 있다. 광주는 정조국의 멀티 골로 잡은 2-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포항전 3-3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포항 원정을 앞둔 송승민의 각오는 남다

르다. 지난해 38경기 전경기를 소화하며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한 송승민은 올 시즌에는 주장이라는 중책을까지 맡았다.

“예전에 주장이 교체되면서 경기 중간에 완장을 찬 적은 있지만 경기 시작할 때부터 (주장 완장)을 차고 나가니까 기분이 새다르고 책임감이 들었다”며 주장 데뷔전에 대한 소감을 밝힌 송승민은 “부담도 있었지만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줘서 개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즐거운 경기, 이기는 경기를 하면 관중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길 것이다. 강팀들과 경기 이어지는 데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포항을 한 번도 못 이겼는데 꼭 2연승을 하면서 포항 징크스를 깨고 오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계약 문제로 팀 합류가 늦어지기도 했던 만큼 송승민은 팀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뛰겠다는 마음이다.

또 “팀 합류가 늦어졌던 만큼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 K리그 최다 연속 출장 기록에도 욕심난다. (연속 출장 기록에) 15경기 정도는 남았는데 몸 관리 잘해서 꼭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캡틴’ 송승민을 중심으로 포항 원정길에 오르는 광주 선수단의 분위기는 좋다.

개막전 승리로 기분 좋은 출발선을 끊으면서 4시간 동안 이어진 개막전 무승에서 탈출했다. 우려했던 신구조화도 잘 이뤄졌다.

새로 합류한 멀티 플레이어 이한도가 대구전 중앙 수비수로 나와 박동진과 완벽한 호흡을 선보이며 무실점 승리에 기여했다. 역시 광주에서 첫 시즌을 맞은 이우혁도 중원에서 여름의 공백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안정된 조율을 선보였다.

광주가 목표로 한 상위 스플릿 진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반 기세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광주가 송승민의 각오대로 ‘포항 징크스’를 깨고 연승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시체육회 조영선

볼링 세계선수권 출전

조영선(32·광주시체육회·사진)이 태극마크를 달고 올 해 열리는 세계월드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광주·전남에서만 5명의 국가대표가 세계대회에 출전하게 되면서 눈길을 모은다.

조영선은 지난해 태릉선수촌 볼링경기장에서 열린 ‘2017년도 볼링 국가대표 최종평가전’에서 종합 1위를 기록, 상위 2명에게 주어지는 세계월드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2위는 강희원(울주군청)에게 돌아갔다.

그는 지난해 열린 12명을 뽑는 ‘2017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을 12위(225.1점)로 통과,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조영선은 이후 열린 최종 평가전에서 2만7189점(평균 226.6점)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대한볼링협회는 이번 평가전을 거쳐 1~2위에게 세계월드대회 출전권을 부여하고 1~8위까지를 세계선수권대회에 내보낸다. 조영선은 1위를 차지, 두 대회 모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영선과 함께 국가대표로 발탁됐던 광양시청 소속 ‘4인방’ 류지훈(27·광양시청·3위), 최복음(30··4위), 신승현(28··5위), 박종우(27··6위)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첨단고에서 볼링 감독을 맡았던 이승우 감독도 대표팀 코치로 선임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머나 먼 ML

강정호 취업비자 늦어질 듯

음주행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던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미국행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닐 헨팅턴 단장은 9일 피츠버그 지역 라디오 ‘CBS 피츠버그’와 인터뷰에서 “취업비자 발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근처에서 음주행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그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져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단 집행유예를 받아 미국으로 건너가는 건 가능해졌지만, 강정호는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라는 큰 산을 넘겨두고 있다.

헨팅턴 단장은 “강정호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절차는 끝났으며, 다음 단계는 미국 정부다. 구단은 다음 단계로 진척되길 기다리지만, 그날날 업데이트되는 일은 아니다”며 “미국 정부와 이민국은 (취업비자 발급) 다음 단계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서둘러달라 해도 비자 발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밝혔다.

스프링캠프를 치르지 못한 강정호는 개막전 출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취업비자 발급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헨팅턴 단장은 주전 3투수인 강정호를 대신할 선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드 보복...한·중 스포츠도 차질

전세기 운항 불허...월드컵 예선팀 출국 지연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서면서 한중 스포츠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 원정을 앞둔 축구대표팀은 원래 전세기를 이용해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6차전이 열리는 창사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축구 대표팀이 요청한 전세기 요청을 거절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붉은악마 등 원정 응원단 규모를 300여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세기를 띄우지 못하면서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붉은악마도 원정 응원단 규모를 50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

축구협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국 협회에 붉은악마 응원석을 불복으로 지정하는 한편 안전요원 배치를 늘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배구와 산악스키에도 사드 여파가 미쳤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다음 달 국내에서 한·중 남자 클럽 국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정부의 참가 반대로 대회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KOVO는 지난해 한국과 중국, 일본의 클럽이 참가하는 한·중·일 남자 클럽 국제배구대회를 열었다. 올해 일본의 참가가 어려워지면서 한국과 중국 클럽 총 4개 팀이 참가하는 한·중 클럽대회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마저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이들 동안 강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하는 2017 아시아컵 산악스키 대회에 출전 신청을 했던 중국이 불참 의사를 전해왔다.

/연합뉴스